

중일 견제와 협력의 지역 정치

— 지역경제기구에서 일본의 대 중국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김 정* · 김 지 영**

jinzheng29@hanyang.ac.kr · kim333@hanyang.ac.kr

<요 지>

2010년대 이후 경제 규모 역전과 영토 분쟁의 격화로 중·일 양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의 대 중국 견제 정책은 강화되었다. 또한 최근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 연대하여 다자외교적 차원에서도 대중 견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일본은 미국과 동조하여 TPP와 IPEF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CPTPP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알려진 일대일로, AIIB, RCEP를 견제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 주도의 다자협력체에 대해 설립 초기에는 부정적 또는 소극적 반응을 보였으나, 점차 적극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으며, 경쟁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일본은 일대일로, RCEP, AIIB 등 중국 주도의 경제 협력체 안에서, 무역, 융자, 인프라 지원, 아시아협력체 구상 등의 영역에서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일체화가 진전되고, 다자협력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은 중국과의 협력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일임을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일 양국이 국제 다자경제·무역기구를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면,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일 양국은 미·중 경쟁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 분단을 극복하고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양국의 경제이익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 경제기구, 지역협력체, 일대일로/AIIB/RCEP, 중·일 협력

*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 일본정치경제 (제1저자)

** 한양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일본정치외교 (교신저자)

1. 서론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 대국으로, 상호 교류가 활발하며 무역 의존도가 높다. 그중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세계 경제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입 대국으로서 다양한 경제적 협력을 이루어 왔으나 갈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세계 차원에서 지정학적 분단이 심화되고 있다. 즉, 일본은 미국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추진하며 중국에 맞서고 있다.¹⁾

이러한 탈동조화, 탈세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경제안보를 강조하며,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우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보 상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다양화의 확보 및 첨단 기술의 우위, 국가 중요 산업의 발전을 통해 중국 리스크에 대응하려고 있다. 2023년 12월 6일의 ‘G7 정상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경제적 강인성과 경제안보에 관한 G7 정상 성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G7 간의 협력과 중국 리스크를 호소하였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다자협력기구에서도 미국과 동조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TPP)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주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BRI, B&R)),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을 견제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일 양국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역내 경제 및 안보 영역에서 갈등과 경쟁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미 견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중국 주도의 지역 기구에서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이 최근 일대일로, AIIB, RCEP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1) 한겨레(2020), 『일, 중 진출 기업 이전 지원 탈동조화 우려 커지는 중국』,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56618.html> (2024년9월21일 검색)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의 대중국 경제협력의 전환이 본격화 된 것은 2017년이며, 그 구체적 사례는 주로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제3국 시장협력’에서 나타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TPP의 탈퇴에 대한 우려, RCEP에 대한 기대, 그리고 중국 주도의 다자 경제기구인 일대일로(BRI)와 AIIB의 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 등이 일본의 정책 변화를 유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중국 주도의 지역 경제기구에서의 정책 변화 분석은 한국의 CPTPP 가입과 세계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의 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중일 양국이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내 다자기구에서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을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다자협력체 내에서의 중일 양국의 협력이나 경쟁 등 양국의 경제 및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중국 주도 다자협력기구에 대한 태도 및 정책 변화 분석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협력과 갈등의 다이내믹스를 고찰한다. 결론에서는 일대일로, RCEP, AIIB가 중국이 미국의 중국 포위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한 경제 협력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이 세 협력체 내에서 중일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 중일 양국의 경제·외교정책 및 협력기구 동향 분석

2.1. 선행연구 검토

경제기구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다자협력체 내에서의 중일 간 협력이나 갈등을 고찰하는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기구에서의 중·일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대일로/RCEP/AIIB 등은 미국의 견제 혹은 미·일 동맹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손열(2014), 김홍규(2016), Ferdinand, P.(2016), TIEN, Nguyen Hoang 외(2019), 고은귀(2022)). 손열(2014)은 미국 주도의 TPP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견제하는 네트워크 전략이며, 일본의 TPP의 가입은 경제적 고려, 미·일 동맹의 강화, 그리고 중국 견제라는 지정학적 고려가 수렴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한·중·일 FTA, RCEP 등 다자 혹은 소다자 FTA 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TPP 대 반(反)TPP”

란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²⁾ 김홍규(2016)는 일대일로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에 대응하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AIIB의 설립은 일대일로를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정치경제 질서 및 세계 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³⁾ Ferdinand, P.(2016) 또한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담고 있다고 제시한다. 그는 BRI가 ‘군사적 수단보다는 전략적 경제 정책을 통해 미국과 경쟁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⁴⁾ TIEN, Nguyen Hoang 외(2019)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IIB의 출범이 기존 브레턴우즈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으며, 이는 경쟁자로서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금융기관인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및 세계은행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⁵⁾

같은 선상에서, 고은귀(2022)는 TPP, CPTPP는 환태평양지역경제의 통합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경제전략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주도의 RCEP이 출범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제프레임워크의 변화 속에 미국 주도의 IPEF라는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의 발효는 RCEP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전략의 경제 버전이자 중국 견제의 완성형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대일로와 RCEP를 주도하여 미국 동맹국의 도전에 맞서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⁶⁾

반면, 일대일로/RCEP/AIIB 등 지역협력체 내에서 중일 양국의 공존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있다(이기태(2016), 이요한(2018), 김준영(2018), 王厚双 외(2019), Jiang, Y.(2019), 徐国玲(2020), 周洪林(2021), 하타사 노부히데(畑佐伸英(2022)), Suzuki(2022)). 이기태(2016)는 ‘가치관 외교’를 중시하는 제2차 아베 내각의 아시아 외교정책이 협력과 충돌이 공존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2) 손열(2014), 「일본의 TPP 교섭참가결정 분석: 지역경제질서 건축전략의 맥락에서」, 『일본연구논총』 제39호, 현대일본학회, p.251.

3) 김홍규(2016),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 한계점과 전망」, 『중소연구』 제40권 제3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p.7.

4) Ferdinand, P.(2016), “Westward Ho—The China dream and ‘One Belt, One Road’”, *International Affairs*, 92(4), pp.941–957.

5) Tien, N. H., Do, P. C., Phong, V. T., Van Thuong, P., & Van Dung, H.(2019), “AIIB as a Challenger for IMF and WB”, *Issue 10 (October 2019)* 2(10), *American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AIJB)*, pp.62–63.

6) 고은귀(2022),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게임이론적 분석:중국과 북핵문제의 교차점」, 『대한정치학회보』 제30권 제2호, 대한정치학회, p.89.

고 주장하였다. 이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속에서 일본이 미일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경계하는 한편, 중·일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갈등을 극복하려는 ‘일본 외교의 지평 확장’이라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⁷⁾ Suzuki(2022)는 최근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싼 중·일 경쟁을 단순히 ‘제로섬 경쟁’으로 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기회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⁸⁾

김준영 외(2018)는 AIIB의 국제 협력 현황을 고찰하면서, 특히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과의 협력 사례에 주목하였다. 이 논문에서 미·일 양국이 AIIB의 부상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ADB와 AIIB는 경쟁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과 협력의 이중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⁹⁾ 하타사 노부히데(畑佐伸英(2022))는 RCEP의 경제 효과 및 경제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일 양국이 RCEP를 통해 윈윈(win-win)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특히 일본은 최대 수혜국으로서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¹⁰⁾ 王厚双 외(2019), 徐国玲(2020), 周洪林(2021) 등은 일대일로에서의 중일 양국의 협력을 고찰하였다.¹¹⁾ 이들 논문은 중일 양국의 제3국 시장인 동남아시아에서의 개발과 협력을 분석하면서 중·일 협력에 대한 도전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요한(2018)은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ADB와 AIIB는 재정 역량과 네트워크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공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¹²⁾ 유사한 논의로서 Jiang, Y.(2019)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일본

7) 이기태(2016), 「협력과 충돌의 대외전략: 일본의 아시아 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44호, 현대일본학회, p.138.

8) Shogo Suzuki(2022), “Economic statecraft, interdependence, and Sino-Japanese ‘rivalry’”, *The Pacific Review* 35(5), Taylor & Francis, pp.971-994. DOI: <https://doi.org/10.1080/09512748.2021.1941209>.

9) 김준영, 이현태, 오윤미(2018),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은 어떠한 협력을 추구해야하는가?- AIIB 의 국제협력현황과 전망」,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1호,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p.114.

10) 畑佐伸英, ハタサノビデ(2022), 「遂に始動した RCEP-「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協定」の意義と課題」, 『大阪経済法科大学経済学論集』 46(1), 大阪経済法科大学経済学会, p.15.

11) 徐国玲(2020), “基于“一带一路”建设的中日第三方市场合作的机遇、挑战及策略”, 『对外经贸实务』 (1), 武汉纺织大学; 中国国际贸易学会, pp.20-23. DOI:10.3969/j.issn.1003-5559.2020.01.006. 王厚双; 张霄翔(2019), ““一带一路”框架下中日加强在东盟第三方市场合作的对策思考”, 『日本问题研究』 33(2), 河北大学, pp.23-33. DOI:10.14156/j.cnki.rbwtj.2019.02.003. 周洪林(2021), ““一带一路”框架下中日第三方市场合作研究”, 青岛大学 석사논문, pp.1-57.

12) 이요한(2018),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쟁과 공존 - ASEAN 개발도상국 인프라를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p.110.

이 해외 인프라 투자 확장을 통한 개발 금융에서 ‘경쟁적 파트너’로 떠오르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고속철도(HSR) 부문을 중심으로 두 나라가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채택한 개발 금융 방식이 전통적인 서구 모델과 차별화된 새로운 개발 금융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중국과 일본이 개발 금융에서 경쟁하면서도 서로의 방식에서 배워가며 변화했다고 주장한다.¹³⁾

이상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대일로/RCEP/AIIB 등의 협력기구가 대미(미·일) 견제용이라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이 세 협력기구 내에서 중일 양국이 경쟁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이 세 기구 내에서 중일 양국 간의 경쟁과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의 논문들이 있으나,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가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협력을 강조한 논문들은 구체적인 협력 사안보다는 주로 앞으로의 협력의 방향이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지역 경제기구에 대한 태도와 정책 변화를 통해 중일 양국이 이 세 지역 기구 내에서 어떻게 협력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본이 중국 주도의 다자 협력기구 내에서 중국을 경계하면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나아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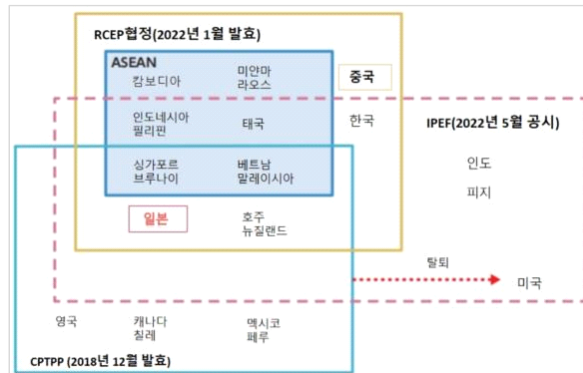
2.2. 중일 양국의 주요 경제협력기구 동향

일본의 경제협력 기구는 CPTPP, IPEF, ‘일본·EU경제연계협정(日EU·EPA)’, ‘일·영 포괄적 경제연계협정(日英EPA)’, RCEP, 일본·GCC자유무역협정,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구상 등 들 수 있다. 여기서 투자관련협정(투자협정 및 투자장(投資章)을 포함한 EPA/FTA) 중, 현재 교섭 중인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하면, 94 개국 및 관련 지역과 연계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대외 직접 투자액의 95%를 차지하고 있다.¹⁴⁾ 일본은 세계 각국과 활발하게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간 또는 양자 간의 경제연대를 통해 미국, 유럽, ASEAN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CPTPP, IPEF 등 다자 경제협력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이 다양한 역내 및 역외 경제기

13) Jiang, Y.(2019), “Competitive partners in development financing: China and Japan expanding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The Pacific Review* 32(5), Taylor & Francis, pp.778-808.

14) 外務省, 『2024 外交青書』,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653233.pdf>, pp.281-282.

구에서 활동하고 있기는 하나 중국과의 경제협정은 RCEP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그림1> 참조).



<그림1>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간 경제협정 구조

출처: 일본 외무성, 『2024년 외교청서』, p.279. (필자 한국어 번역)

RCEP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지역 내 관세 장벽의 철폐와 무역 원활화를 목적으로 창설되어 2022년 발족하였다. 회원국으로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 및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 국가가 포함되고 있으며, 경제력과 인구 등 규모에서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TPP에서 탈퇴함에 따라 일본이 CPTPP를 주도하게 되면서 아·태지역 내에서 두 개의 다자경제협력체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중일 양국이 아태지역에서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 구도 하에서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 간에 긴장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반면, RCEP 발족 이후, TPP에서 탈퇴한 미국은 2022년에 정식으로 IPEF를 출범하여 ‘더 나은 세계 구축 (3BW: Build Back Better World)’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고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의 “실제 목표는 첨단기술 분야와 중요한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추구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려는 의도”라고 분석되고 있다.¹⁵⁾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IPEF와 일본이 주도하는 CPTPP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적 포위망이 형성되었다는 해

15) 경기일보(2021), 『RCEP 협력과 CPTPP 갈등, 그리고 IPEF의 긴장』,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12201181398> (2024년8월10일 검색)

석이 있다. 이러한 역내 경쟁 구도의 형성으로 중일 양국의 관계가 냉각된 측면도 있으나, 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2023년 11월 26일, ‘제10회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부산에서 4년 만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의 외교부 장관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인적 교류, 과학기술, 지속 가능한 발전, 공공 위생 및 보건, 경제협력·무역, 평화·안전 보장’ 등 6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¹⁶⁾ 또한 2024년 5월 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3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최대 무역 교역국으로는 미국 1위, 일본 2위, 한국 3위이며, 미국이 주도한 대중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은 한일 양국과 정치적 대화를 통해 경제적인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¹⁷⁾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중일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으며 3국 정상들은 모두 한·중·일 관계의 ‘재출발’을 언급하였다.¹⁸⁾ 특히,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정상회담의 정기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¹⁹⁾

중·일 관계에 있어서는, 2024년 1월 일본 재무성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 무역에서 EPA/FTA 비율²⁰⁾은 약 78.8%에 이르렀으며, 교섭 중인 8.1%를 포함하면 총 86.9%에 달한다. 이 중에서 중국이 19.9%, 미국이 15.07%, ASEAN 15%, EU가 10.27%, GCC 7.63%, 호주 5.44%, 대만 5.21%, 한국 5.19%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그림2> 참조).²¹⁾ 즉,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국이며, 양국은 국제무역기구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다.

16) 外務省, 『2024 外交青書』, p.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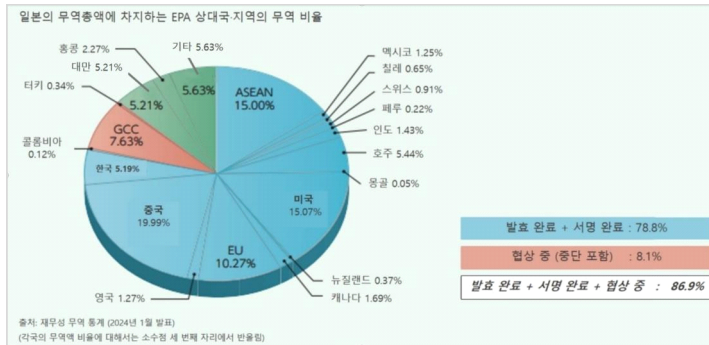
17) 毎日新聞(2024), 『だった中国、韓国は共通利益を強調 日中韓首脳会談』, <https://mainichi.jp/articles/20240527/k00/00m/030/298000c> (2024년9월24일 검색)

18) 毎日新聞(2024), 『日韓・中、隔たる思惑 首脳会談』, <https://mainichi.jp/articles/20240528/ddm/003/010/045000c> (2024년9월24일 검색)

19) 毎日新聞(2024), 『日中韓首脳会談が再開 対話の流れ加速させたい』, <https://mainichi.jp/articles/20240528/dm/005/070/018000c> (2024년8월22일 검색)

20) 일본의 무역 총액에서 발효 및 서명된 경제연계 협정 상대국과의 무역액 비율을 가리킴.

21) 外務省, 『2024 外交青書』, p.277.



<그림2> 일본의 무역 총액에 차지하는 EPA 상대국·지역의 무역 비율
 출처: 일본 외무성, 『2024 외교청서』, p.277. (필자 한국어 번역)

3. 경제기구를 둘러싼 중일 양국의 태도 및 외교정책 변화

3.1. 일대일로(一帶一路)- 견제에서 제3국 시장을 통한 협력으로

일대일로는 글로벌 인프라 개발 전략으로서 2015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에서는 일대일로를 “개방 확대의 중대한 전략적 조치 및 경제외교의 최고 방침”으로 위치시켰다.²²⁾ 이는 경제적 연결성 강화, 인프라 개발, 정책 협력 강화, 금융 협력 확대, 사람 간의 교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 또는 세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일본의 ‘중국 위협론’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지정학적으로 미일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초기에 일본은 경제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대일로 발표 이전 중일 양자관계는 상당히 냉각된 상태였다. 특히, 2012년도에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중국어명: 다오위다오)의 국유화로 인해 중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또한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가장 굳건한 동맹으로서 일본의 일대일로 가입은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 가맹국이 점차 확대되고, 1000억 달러 자본금을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AIIB의 발족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도 점차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22) 新浪网(2024), 『共筑发展繁荣之路—“国家重大战略中的市场监管力量”共建“一带一路”』, <https://finance.sina.com.cn/jjxw/2024-07-25/doc-incfjqvf8550602.shtml> (2024년9월10일 검색)

특히 조어도 사건으로 냉각된 중일관계가 2017년도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을 맞아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2017년,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에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방문하였고, 같은 해 6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대일로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협력의사를 표명하는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²³⁾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당초 일대일로에 대해 “중국이 경제 패권을 쥐기 위한 목적”이라고 경계해 왔지만, 일대일로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경제 협력을 추진하여 조속히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일대일로에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하였다.²⁴⁾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 간의 상호 방문 체제가 복원되었고,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동년, 아베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회의에서 중일 간 제3국 시장을 통한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케이단렌(經團連)을 비롯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계 방중단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일대일로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민간·경제 단체들이 일대일로의 틀 안에서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본의 이토추 로지스틱스(伊藤忠ロジスティクス)는 2018년부터 러시아 국영 철도 산하의 유류 물류 대기업 GEFCO와 협력하여, 일본의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중국을 경유해 일본과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수송 서비스를 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본통운(日本通運)은 일대일로 구상에 따른 물류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상하이항을 운영하는 상하이국제항유한공사(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 SIPG) 산하 상하이집단물류유한공사(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 Logistics, SIPGL)와 업무 제휴 각서를 체결하고, SIPG의 자원을 활용해 항만과 해상 수송을 통한 고도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²⁵⁾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의 민간기업이 일대일로 연선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제3국에서 중국 기업과 함께 태양광, 풍력 발전, 공업 단지 개발 등의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을 제시하였다. 특히 태국 중부의 경제특구인 ‘동

23) 中国一帯一路网, <https://www.yidaiyilu.gov.cn/>

24) 경향신문(2017), 『‘중국 구애’ 강화하는 일본, ‘일대일로’ 투자 기업 지원키로…대북 압박,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등 목적』,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711281607001> (2024년9월8일 검색)

25)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2018), 『在中国日系企業のビジネス展開における課題と留意点』, pp.31-32.

부경제회랑’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 협력, 산업의 고도화, 물류망의 편리성 향상이라는 세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내놓았다.²⁶⁾

2018년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을 공식 방문하면서 중일 양국은 제3국 시장을 통한 협력에 합의하였고, 이와 관련된 각서²⁷⁾를 작성하였다. 또한, 2019년 6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 참석 차 오사카(大阪)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10가지 합의’를 도출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둘러싼 중일 협력에 대한 생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같은 해, 제8회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일 양국 정상은 ‘새로운 시대 요구에 부합되는 중일관계’, ‘경쟁을 협조’로 전환할 것을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베 총리는 2018년 10월 25일에 열린 중일정상회담을 계기로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였고, 이 기간에 정치·금융·세관·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여건의 정부 간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중일 민간 비즈니스의 제3국 전개 추진에 관한 위원회」 및 「중일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제3국에서의 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중일 민간 기업·단체 간에 52개의 협력 각서가 체결되었다. 신속화·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위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사업자 인정) 상호 승인 결정에 서명하였고, 중일 증시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여 「중일 증권시장 포럼」을 개최하며 ETF의 상호 상장을 실현하기 위한 피지빌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 FS)를 심화시키기로 하였다.²⁸⁾

한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따라 중일 양국은 제3국에서의 협력을 통해 주로 인프라 개발 및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항만 건설 및 철도 사업,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공업 단지 건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지역 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해외 인프라 건설 사업에 진출한 기업 중 일본 기업과의 협력 사례는 6건이 있었으며, 이 중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협력이 가장

26) 경향신문(2017), 『‘중국 구애’ 강화하는 일본, ‘일대일로’ 투자 기업 지원키로…대북 압박,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등 목적』 (2024년9월8일 검색).

27) 각서는 일본 외무성에 공정한 『日本国外務省及び経済産業省と中華人民共和国国家発展改革委員会及び商務部との間の第三国における日中民間経済協力に関する覚書』를 가리킨다.

28) 外務省(2018), 『安倍総理の訪中(全体概要)』, https://www.mofa.go.jp/mofaj/a_o/c_m1/cn/page4_004452.html#section11 (2024년9월13일 검색)

많다.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따라 서아시아와 동아프리카에서도 협력 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国際協力機構)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와 일본 주도의 JICA 간 협력 관계를 재차 증명해 주고 있다(<표1> 참조).

<표1> 중일 기업 해외 협력 프로젝트

연월	기업명	기업명	프로젝트
2022년 3월	중국화학공정제철건설유한공사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三菱重工)	방글라데시 최초 친환경 비료 공장
2022년 4월	중국기계공업공정그룹유한회사 본사(중국기계설비공정주식회사)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国際協力機構), 용자 지원	우간다 수도 캄팔라 도시 송변 전 프로젝트 EPC 계약
2022년 4월	장쑤 수메이다(苏美达)그룹유한공사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国際協力機構), 용자 우대	캄보디아 씨엠립 급수 개선 프로젝트 가동
2023년 5월	중국선박그룹 산하 후동중화(沪东中华)	일본 주식회사 쇼센미쓰이(商船三井)	카타르 LNG선 100척 프로젝트
2023년 8월	중국전력건설그룹	일본 미쓰비시 상사(日本三菱商事)	에티오피아 지열발전소 프로젝트
2023년 11월	중국건설 산하의 상하이 중건 해외 발전 인도네시아 유한회사	일본 다이세이 주식회사(大成建設株式会社)	인도네시아 고급 아파트 프로젝트

출처: 중국 일대일로, 『중국 기업 해외 프로젝트 주간 보고서』의 2021년 2월부터의 2023년 11월 초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필자 작성. [https://www.yidaiyilu.gov.cn/list/w/xmzb\(2024년11월6일 검색\)](https://www.yidaiyilu.gov.cn/list/w/xmzb(2024년11월6일 검색))

2022년은 중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중 관계를 구축”하기를 재차 강조하면서, 일본은 중일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고위층 교류와 대화 소통의 유지’,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실용적인 협력의 촉진’, ‘인문 교류의 확대’,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한 협력의 강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건설적인 중일관계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²⁹⁾ 이는 중일 양국뿐만 아니라 제3국, 나아가 지역 안전과 세계 경제 번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록 일본은 일대일로의 회원국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제3국 시장을 통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3국 시장 협력(第三国市場協力)’에 대해 구체적으로 6가지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즉, 1) 중일 기업이 공동으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 및 운영; 2) 중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수주 프로젝트에서 EPC(설계, 조달, 건설)과 기기 공급을 담당; 3) 중일 합작 기

29) 中国一带一路网(2022), 『习近平会见日本首相岸田文雄』, <https://www.yidaiyilu.gov.cn/p/291753.html> (2024년 9월24일 검색)

업이 제3국 시장에 제품을 진출시킴; 4) 일본 기업이 중국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해당 제품을 제3국에 진출시킴; 5) 중일 기업이 협력하여 중국에서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3국에 진출시킴; 6) 중일 기업 간 정보를 강화하여 제3국 시장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³⁰⁾

일본 아시아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협력 사안을 세 가지 모델로 제시하였다. 즉, 일본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이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 중국 기업이 수주한 화력발전소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일본 기업이 발전 플랜트를 제공하는 경우, 중일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건설한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이다. 이는 미·중 경제 마찰의 격화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게도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즉, 일본과 중국 기업의 공급망이 중첩되어 있어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일본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서의 협력은 양국 간 제3국 시장 협력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³¹⁾

3.2. RCEP- 협력의 확대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는 높은 무역자유화 기준을 제시하면서, 중국 견제를 염두한 미국과 일본 중심의 신(新)경제동맹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중시하던 트럼프 정부가 TPP를 탈퇴하고, 일본이 이를 주도하게 되면서 CPTPP로 명칭 변경되어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되었다. 중국은 초기 미국 주도의 TPP가 자국을 아·태지역에서 고립시킬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경계했으며, 트럼프 정부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RCEP 출범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³²⁾

트럼프 정부 시기,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 보호주의’를 고수하여 다자무역협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TPP에 탈퇴하였지만, 새로 등장한 바이든 정부는 2022년 5월에 IPEF³³⁾를 출범시켰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30) アジア経済研究所(IDE-JETRO)(2020), 『転機の一帯一路構想と日中経済協力』, <https://www.ide.go.jp/Japanese/Publish/Reports/AjikenPolicyBrief/133.html> (2024년9월8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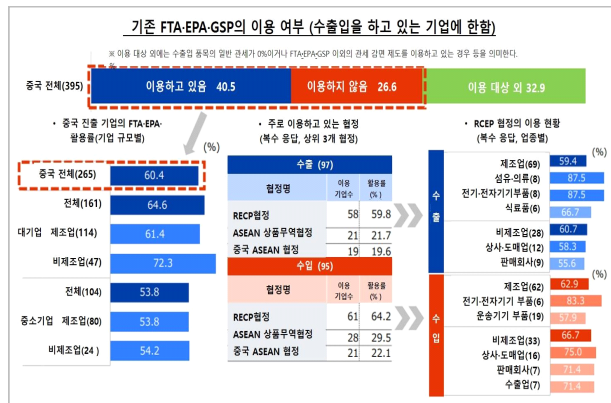
31) アジア経済研究所(2020), 위의 인터넷 자료.

32) 한국경제(2021), 『CPTPP 가입 추진하는 중국의 노림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91738441> (2024년9월10일 검색)

33) IPEF는 전통적인 FTA와 다르게 1)디지털 경제 및 기술표준; 2)공급망 회복; 3)탈탄소·청정에너지; 4)사회간접자본; 5)노동 기준 등 신(新)통상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공급망, 청정경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한·일 등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신통상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IPEF는 RCEP 및 CPTPP보다 규모가 큰 경제블록으로서 미국 주도 IPEF와 중국 주도 RCEP의 대립 구도가 예상되며, 일대일로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³⁴⁾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지경학적 분단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IPEF에 가입함으로써 미국과 동조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일본은 “경제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수출통제 등을 통한 핵심 산업 경쟁력의 확보와 반도체·배터리 등 중요 산업의 공급망 강화뿐만 아니라, IPEF를 통한 동맹국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³⁵⁾ 그러나 일본이 미국에 동조하여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일 양국은 제3국 시장을 통한 무역 교류에서 경쟁을 협력으로 전환하기로 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RCEP을 통해 무역 교역을 확대하고 있다(<그림3> 참조).



<그림3> 중국의 일본기업 FTA·EPA·GSP 이용 현황

출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2023), 『2022년도 해외 진출 일본계 기업 실태 조사』, p.32.
(필자 한국어 번역) https://www.jetro.go.jp/ext_images/_Reports/01/0a95704963871dd3/2022059.pdf (2024년7월30일 검색)

제, 공정경제, 무역 등 4개 협상 분야가 있으며 2023년 5월에 공급망 협정이 타결되었고 이는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34) 동아일보(2022), 『韓, 공급망·디지털 중심 IPEF 참여…13개국 ‘거대 경제협력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23/113576582/1> (2024년8월16일 검색)

35) 산업통상자원부(2022), 『아태 통상 시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모색』, <https://www.fta.go.kr/rcep/paper/1/> (2024년8월16일 검색)

상기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중, FTA·EPA·GSP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이용률은 40.5%이며, ‘이용대상제외’ 기업을 포함하면 60.4%를 차지한다. 주요 이용 협정으로는 RCEP, ‘ASEAN 상품무역협정’, ‘중국-아세안 협정’이다. 이 중에서, RCEP의 이용률은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59.8%, 64.2%로 1위를 차지하였다.³⁶⁾

아시아지역에서 RCEP의 발족은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며 주로 지역 내 관세 장벽의 철폐와 무역 원활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RCEP을 통해 중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 즉, 중국과 일본은 RCEP를 통해 수입관세 양허 수준에서 각각 88%와 86%의 ‘최종 철폐’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세 0%’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 비율은 각각 25%, 57%에 이른다. 10년 후에는 이 비율이 약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역내 수출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표2>, <표3> 참조). 또한, RCEP 회원국 간에는 원산지 누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나 중간재가 여러 체결국 사이에 교역되더라도 역내 생산으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간재 수출입이 활발한 한-중-일 삼국간의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³⁷⁾

<표2> 중국 대(對) 주요 체결국 수입 관세양허 수준(단위: %)

양허유형		한국	일본	ASEAN	호주	뉴질랜드
(발효 후) 즉시 철폐 비중		38.6	25.0	67.9	65.8	66.1
점진적 철폐 비중	10년	41.0	46.5	12.7	14.2	13.9
	15년	3.1	11.5	3.0	0	0
	20년	3.2	3.0	6.9	10.0	10.0
최종 철폐 비중		86.0	86.0	90.5	90.0	90.0

출처: KOTRA, 『RCEP의 향후 중국 대외무역 관련 영향 전망』

<표3> 주요 체결국 대(對) 중국 수입 관세양허 수준(단위: %)

양허유형	한국	일본	ASEAN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인니,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즉시 철폐	50.4	57.0	74.9	29.9	75.3	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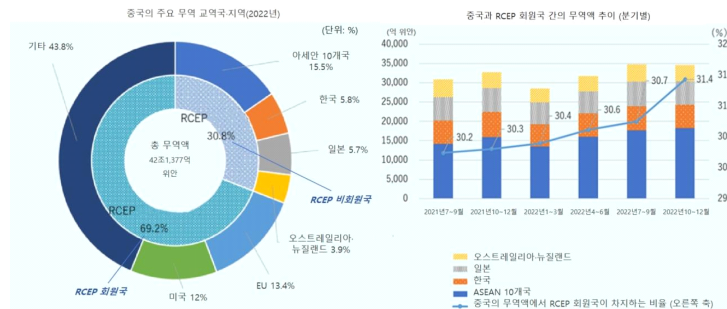
36) JETRO(2023), 『2022年度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 p.32.

37) KOTRA(2022), “RCEP의 향후 중국 대외무역 관련 영향 전망”,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5868 (2024년9월9일 검색)

최종 철폐	86.0	88.0	90.5	86.3	98.2	91.8
제한적 양허	1.1	0	5.5	0	1.1	8.2
양허 예외	12.9	12.0	4.0	13.7	0.7	0
자료: 중국해관						

출처: KOTRA, 위의 인터넷 자료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의 중국과 RCEP 협정 가맹국과의 무역액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2조 9,500억 위안으로, 중국 무역액의 약 30.8%를 차지하고 있다.³⁸⁾ 이중, 중일 간 RCEP 무역액은 5.7%를 차지하고 있으며(<그림4> 참조),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무관세 상품 비중이 8%에서 86%로 확대될 것이며,³⁹⁾ 관세 혜택과 무역자유화의 확대에 양국의 무역 교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4> 중국의 주요 교역국·지역과의 무역액 추이(2022년)

출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2023), 『RCEP 협정 발효 1년 후 중국에서의 이용 확대』(필자 한국어 번역)

즉, RCEP 협정이 발효된 지 1년여 만에 재중 일본계 기업의 RCEP 이용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무역 총액에서 RCEP 협정 가맹국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⁴⁰⁾ 최근 자료인 2023년 중국의 대 RCEP 회원국 무역액을 보자면, 일본, 한국,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 순으로 높았으며, 이들 5개국이 전체 수출입액의 70% 이상을 차지했다.⁴¹⁾ 이 중, 중국의 대 일본 수출입액은 약 2조 2240억 위안으

38) JETRO(2023), 『発効から1年、中国ではRCEP協定の利用が拡大』,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23/f08ccdac54846c97.html> (2024년8월30일 검색)

39) KOTRA(2022), 『RCEP 발효와 중국 무역(1) 주요 포인트와 시사점』,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3029 (2024년9월20일 검색)

40) JETRO(2023), 『発効から1年、中国ではRCEP協定の利用が拡大』

로, RCEP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출입액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전체 대 RCEP 회원국 수출입액 중 약 18%를 차지한다(<표4> 참조). 향후, 단계적으로 관세가 삭감·철폐됨에 따라 RCEP 이용률이 한층 상승할 것이며, 중국과 RCEP 협정 회원국 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4> 2021~2024년 중국의 대 RCEP 회원국 수출입액 추이(단위: 억 위안,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일본	24,020	9.4%	23,831	-0.7%	22,385	-5.7%	8,799	-2.0%
한국	23,407	18.4%	24,121	3.2%	21,848	-8.7%	9,274	7.4%
베트남	14,878	12.0%	15,698	5.6%	16,186	5.0%	7,234	26.2%
호주	14,947	26.0%	14,723	-0.9%	16,108	9.8%	6,516	-1.6%
말레이시아	11,420	25.6%	13,601	19.3%	13,383	-0.1%	5,845	15.3%
인도네시아	8,038	48.0%	9,957	23.8%	9,805	-0.9%	4,022	0.7%
태국	8,477	24.0%	8,994	6.2%	8,874	0.2%	3,829	5.9%
싱가포르	6,078	-1.6%	7,715	27.4%	7,617	2.2%	3,332	7.2%
필리핀	5,301	25.2%	5,853	10.6%	5,052	-11.5%	2,046	-3.2%
뉴질랜드	1,598	27.2%	1,672	4.7%	1,500	-9.9%	609	-5.0%
미얀마	1,202	-7.9%	1,683	40.1%	1,468	-11.1%	549	-22.7%
캄보디아	883	33.6%	1,066	21.0%	1,041	0.0%	526	21.2%
라오스	281	13.5%	380	35.7%	501	33.3%	251	39.8%
브루나이	184	36.6%	205	11.1%	198	-2.7%	92	55.8%

[자료: 중국 해관총서]

출처: KOTRA, 『중국 RCEP 발효 2주년, 무역 투자 현황과 성과는?』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CONTENTS_NO=2&MENU_ID=80&SITE_NO=3&bbsGbn=242&bbsSn=242&pNttSn=217387\(2024년11월11일 검색\)](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CONTENTS_NO=2&MENU_ID=80&SITE_NO=3&bbsGbn=242&bbsSn=242&pNttSn=217387(2024년11월11일 검색))

2022년도 일본의 경제안보법의 공포에 따른 경제안보의 강화, 대 중국 반도체 23 품목의 수출통제, IPEF, 미일인호 쿼드(Quad) 등 탈중국화의 움직임은 중일관계를 긴장시켰지만, 무역 교역에서 중국은 여전히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중일 양국은 높은 상호 의존도와 상호보완적인 무역 구조 속에서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2024년, 4년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2019년부터 중단된 FTA의 재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높은 수준의 호혜

41) KOTRA(2024), 『중국 RCEP 발효 2주년, 무역 투자 현황과 성과는?』,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CONTENTS_NO=2&MENU_ID=80&SITE_NO=3&bbsGbn=242&bbsSn=242&pNttSn=217387\(2024년11월19일 검색\)](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CONTENTS_NO=2&MENU_ID=80&SITE_NO=3&bbsGbn=242&bbsSn=242&pNttSn=217387(2024년11월19일 검색))

적인 한·중·일 FTA 구상”을 목표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투명성 있는 RCEP의 이행’, ‘한중일 +ASEAN’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선언하였다.⁴²⁾ 일본은 한편으로는 한미일 공조, 미일동맹 강화, 미일인호 쿼드, G7 등으로 우호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양자 및 다자간의 무역협력체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3. AIIB- 견제에서 협력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중국이 처음으로 주도한 세계금융기관으로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및 기타 생산성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과 지역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⁴³⁾ 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며 많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흥 시장이나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에 대한 자금 조달 수요가 많은 현실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3년 10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동남아 순방 중 AIIB 설립을 제안하였다.⁴⁴⁾ 이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제적 기반으로 중국이 처음으로 주도한 국제경제금융기구이다. 이러한 중국 주도로 설립된 AIIB는 막대한 자본금을 기반으로 융자 및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에 대항한 것으로 기존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분석들이 있다.⁴⁵⁾

미·일 양국의 경계와 견제에 대해, 중국 재정부 부장은 “AIIB는 아시아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여 역내 상호 연결과 경제협력을 촉진하고자 한 것, 기존의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은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중점 업무가 다르고, “AIIB와 기존 다자개발은행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표명하였다.⁴⁶⁾ 또한 기존 다자개발은행의 자금 부족과 사업 범위가 지역의 추가 개발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며, 아시아 인프라 자금 조달 수요가 막대한 상황

42) 日本經濟新聞(2024), 『日中韓, FTA交渉再開で合意 朝鮮半島の安定に「責任」』,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46TH0U4A520C2000000/> (2024년9월1일 검색)

43)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중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2014), 『中国倡导支持亚洲基础设施建设 亚投行“呼之欲出”』, https://www.gov.cn/xinwen/2014-03/07/content_2632146.htm (2024년9월1일 검색)

44)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4), 위의 인터넷 자료.

45) 동아일보(2015), 『중 금융굴기 AIIB의 위력』, <https://www.donga.com/WEEKLY/inter/article/all/11/99106/1> (2024년9월10일 검색)

46)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4), 『中国倡导支持亚洲基础设施建设 亚投行“呼之欲出”』

에서 “AIIB는 기존 다자개발은행과 협력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아시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며,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이 국제 개발 어젠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도 변함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⁴⁷⁾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와 AIIB의 영향력 확대는 미일 양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AIIB의 설립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권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위안화의 국제화는 미국 달러의 세계화폐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약해지면서 신흥국들이 강대국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동맹을 맺는 중이며,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를 중심으로 탈달러화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는 사이에 세계경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⁴⁸⁾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미·일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기존의 세계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경제권의 확대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AIIB 설립 초기인 2015년, 세계은행과 ADB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AIIB의 발족이 미국이 주도한 세계금융질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AIIB 가입에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2015년 3월 31일,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郎)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AIIB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응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소 재무상은 AIIB에 대해 이사회 조직, 운영 및 관리, 대출 심사, 메커니즘의 투명성,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이 오늘 합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표명하였으며, 일본은 AIIB의 초기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았다.⁴⁹⁾ 한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AIIB는 일본에게 반드시 매력적인 기관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Jin Liqun AIIB 총재가 주장했듯이, AIIB가 모든 국적의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계약 입찰 과정을 개방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47)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4), 위의 인터넷 자료.

48) 한겨레(2023), 『‘미중 질서’ 무너진 시대 바뀌는 세계경제 흐름』,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9581.html (2024년8월16일 검색)

49) 新华网(2015), 『日本为什么放弃成为亚投行创始成员国』, http://www.xinhuanet.com/world/2015-04/01/c_127644110.htm (2024년8월16일 검색)

났다. 최근 몇 년 동안 ADB에서 일본 기업들에게 인프라 계약이 배정된 비율은 0.5%에 불과했다. 일본은 건설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도나 중국과 같은 경쟁 국가들에게 계약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즉, 아시아에서 향후 10년 동안 인프라 수요가 8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자주 인용되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로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위험과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⁵⁰⁾

그러나 중국이 AIIB, 상하이협력기구(SCO), 신개발은행(NDB)⁵¹⁾ 등을 통해 브릭스(BRICS)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에 경제적 주도권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일본은 아시아 역내 중국 주도의 AIIB를 견제하기 위해 투자금을 늘리는 등 기존 아시아 인프라 지원전략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아베 총리는 2016년~2020년 5년간 아시아지역 인프라에 약 1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기존 투자금 대비 30%가량 늘어난 규모이다.⁵²⁾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JICA를 통해 필리핀 마닐라 철도건설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ODA 액으로 약 2400억 엔(약 2조 3000억 원)을 제공할 방침을 내놓았으며, 이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견제하고 도로 항만 등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였다.⁵³⁾ 또한 JBIC(일본국제협력은행)은 미국, 인도 및 호주 정부 산하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한 IPEF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할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협력체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⁵⁴⁾

이상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미국의 동조 요구, 경제적 이익 고려, 중국 주도 투자은행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초기에는 신중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일대일로와 AIIB의 영향력 확대 및 가맹국 증가⁵⁵⁾에 따라 일본 국내 정

50) Katada, S. N.(2016), “At the crossroads: The TPP, AIIB, and Japan’s foreign economic, strategy”, *AsiaPacific Issues* NO.125, Analysis from the East-West Center, p.6.

51) 신개발은행은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 5개 국이 설립한 국제개발금융 기관이다.

52) 한국경제(2015), 『중국 AIIB 견제 나선 일본, 필리핀에 2400억엔 지원』, <https://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72886031> (2024년9월10일 검색)

53) 위의 인터넷 자료.

54) 뉴스비전(2022), 『일본 국제 협력 협력 은행, 미국,인도 및 호주 정부 산하 금융기관과 협력 강화 계획』, <https://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97> (2024년8월20일 검색)

55) 세계은행의 보고에서 일대일로가 2030년까지 세계에 매년 1조6천억달러(약 238조엔)의 이익을 창출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까지 세계의 4분의 3이 넘는 국가와 30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일대일로 협력문서에 서명했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대출도 확대해 왔다(출처: 日本經濟新聞(2023), 『中国・王毅外相、APECで「建設的役割」国際貢献の姿勢強調 - (nikkei.com)』, <https://www.nikkei.com>)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⁵⁶⁾ 이에 따라 2016년 AIIB와 ADB의 중일 양국의 두 대표는 에너지, 교통, 통신, 농촌 및 농업 건설, 수자원, 도시화 건설 및 환경 보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협력 각서에 서명하였다.⁵⁷⁾ 2016년 5월, ADB와 AII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협력 양해 각서’를 토대로, 파키스탄의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각각 1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는 ADB가 처음으로 AIIB와 협력한 사례이다.⁵⁸⁾ 2017년 기준, ADB와 AIIB는 파키스탄 M4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 방글라데시의 천연가스 생산 및 운송 개선 프로젝트, 그루지야의 항구 도시 도로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인도의 ‘녹색에너지 회랑’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망 시스템 건설 등 총 4개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있다.⁵⁹⁾ 2018년,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ADB의 나카오 타케히코(中尾武彦)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AIIB와의 관계에 대해 “위협이 아니며, 인프라 투자에 특화된 AIIB와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지금까지 4건의 용자 협력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두 금융기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⁶⁰⁾ 2019년까지 ADB와 AIIB는 5개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방글라데시, 조지아, 인도, 파키스탄에 대한 4개의 ‘정부 변제 보증 대출(sovverign loans)’과 ADB 민간 부문 운영부를 통한 미얀마에서의 공동 거래가 포함되었다.⁶¹⁾ 2021년, ADB의 아사카와 마사츠구(浅川雅嗣) 총재는 아시아 신흥국의 코로나19 긴급 지원책으로 200억 달러(약 2조 700억 엔)를 마련하여 AIIB와 협조 용자를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⁶²⁾ 2022년, 그는 니혼게이지가이

m/article/DGXZQOCB26CET0W3A920C2000000/ (2024년9월18일 검색)

- 56) 澎湃新闻, 『中日关系或现转机: 日本想加入亚投行, 访华团带来安倍亲笔信』, https://m.thepaper.cn/kuaibao_detail.jsp?contid=1686852&from=kuaibao (2024년9월18일 검색)
- 57) 人民政协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웹사이트)(2016), 『亚投行与亚开行签合作备忘录 将开展合作融资』, <https://www.rmzxb.com.cn/c/2016-05-03/792598.shtml> (2024년9월18일 검색)
- 58)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16), 『亚洲开发银行首次和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合作融资』, <http://gpj.mofcom.gov.cn/article/zuixindt/201606/20160601338404.shtml> (2024년9월11일 검색)
- 59) 中国一带一路网(2017), 『亚行与亚投行融资合作: 10亿美元助印度电力升级』, <https://www.yidaiyilu.gov.cn/p/29424.html> (2024년9월11일 검색)
- 60) 日本経済新聞(2018), 『アジア開銀総裁、AIIB「脅威ではない」』,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30121420T00C18A5EE8000/> (2024년9월11일 검색)
- 61) ADB(Asian Development Bank)(2019), 『ADB and AIIB Presidents Discuss Strategic and Operational Issues』, <https://www.adb.org/news/adb-and-aiib-presidents-discuss-strategic-and-operational-issues> (2024년9월18일 검색)
- 62) 日本経済新聞(2021), 『アジア開銀、新型コロナ対策支援でAIIBと協調融資』, <https://www.nikkei.com/article/>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응해 새로운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중국이 주도하는 AIIB와의 공조를 시도할 것으로 밝혔다.⁶³⁾ 2023년 기준, AIIB는 JICA와 7건의 용자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AIIB는 프로젝트 입찰에서 비회원국 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도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⁶⁴⁾

<표5> ADB 주도 AIIB 공동 자금 지원 협력 프로젝트 (2023년 중반기)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프로젝트	AIIB 파이낸싱 (USD Million)	국가별 총액
파키스탄	국도 고속도로 M-4 쇼르코트-카네왈 구간(Shorkot-Khanewal Section)	100.00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COVID-19 긴급 대응 및 지출 지원 (CARES) 프로그램	100.00	
방글라데시	천연가스 인프라 및 효율성 개선	60.00	
방글라데시	다카(Dhaka) 및 서부 지역 송전망 확장 프로젝트	200.00	1410.00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COVID-19 대응 및 지출 지원 프로그램	250.00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 프로그램 (부(副)프로그램 1)	250.00	
방글라데시	사회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부(副)프로그램 2)	250.00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 프로그램 (부(副)프로그램 2)	400.00	
캄보디아	캄보디아 신속 예방접종 지원 프로젝트	50.00	
룩 제도	COVID-19 적극 대응 및 경제 지원 프로그램	20.00	
피지	민간 부문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개혁 프로그램	50.00	100.00
피지	피지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회복 프로그램	50.00	
조지아	바투미(Batumi) 우회도로	114.00	
인도	타밀나두(Tamil Nadu) 송전 시스템 강화	100.00	1870.50
인도	인도 COVID-19 긴급 대응 및 지출 지원 프로그램	750.00	
인도	델라-메루트(Delhi-Meerut) 광역 고속 교통 시스템 프로젝트	500.00	
인도	인도 COVID-19 회복을 위한 대응 백신	500.00	
인도	그린셀 전기 버스 금융 지원 프로젝트	20.50	
인도네시아	코로나19 긴급 대응 및 지출 지원 프로그램	750.00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COVID-19 적극 대응 및 지출 지원 (CARES) 프로그램	750.00	
라오스	몬순 600 메가와트 풍력 발전 프로젝트 - 대출	150.00	
몰디브	그레이터 말레 페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40.00	
몽골	몽골 COVID-19 신속 대응 프로그램	100.00	221.00
몽골	COVID-19 백신 전달 프로젝트	21.00	
몽골	위기 대응 프로그램	100.00	
파키스탄	카라치 버스 신속 환승 레드 라인 프로젝트	71.81	1521.81
파키스탄	코로나19 대응 및 지출 지원 프로그램	500.00	
파키스탄	발라코트 수력 발전 프로젝트	250.00	
파키스탄	카이버 파크트크와(Khyber Pakhtunkhwa) 중급 도시 개선 프로젝트	200.00	
파키스탄	경기 대응 지출(BRACE) 프로그램을 통한 회복력 구축	500.00	

DGXZQOGM178TX0X11C20A2000000/ (2024년9월11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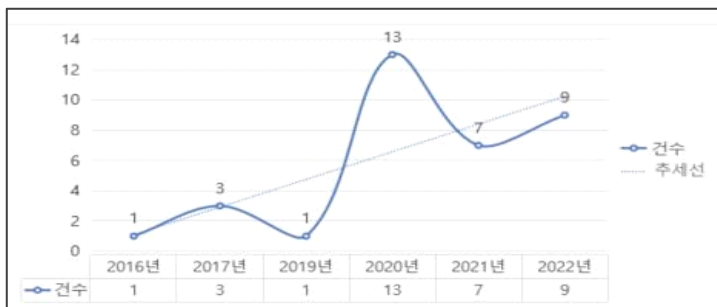
63) 日本經濟新聞(2022), 『ADB總裁「食料危機に財政支援」AIIBと協調模索』,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87D60Y2A810C2000000/> (2024년9월11일 검색)

64) JIJI.COM(2023), 『中国主導のAIIB、日本に秋波 筆頭副総裁単独インタビュー』, <https://www.jiji.com/jc/v8?id=202305kaisetsuini060> (2024년9월10일 검색)

필리핀	필리핀 COVID-19 긴급 대응 및 지출 지원 프로그램	750.00	1800.00
필리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2차 보건 시스템 강화 프로젝트 (HEAL2-AF)	300.00	
필리핀	추가 용자 지원: 아시아 태평양 백신 접근 시설 프로젝트 하의 필리핀	250.00	
필리핀	코로나19 대응 및 억제력을 위한 제2차 보건 시스템 강화 사업 (HEAL 2)	500.00	
	포스트 COVID-19 비즈니스 및 고용 회복 프로그램 - 부(副)프로그램 1		
우즈베키스탄	보건 비상 대응 프로젝트	100.00	208.00
우즈베키스탄	부하라-히바간(Bukhara-Miskin-Urgench-Khiva) 철도 전철화 프로젝트	108.00	
합계	36건	9205.31	

출처: AIIB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보충하여 작성 및 번역함. https://www.aiib.org/en/about-aiib/who-we-are/project-affected-peoples-mechanism/_common/_download/Approved-Co-Financed-Projects-Mid-2023-with-Applicable-ESP-and-IAM_15082023_Uploaded-on-Website.pdf (2024년 11월 6일 검색)

상기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 중반기 기준으로 AIIB와 ADB 간의 용자 협력 건수는 총 36건에 달하며, AIIB의 총 투자액은 약 92억 500만 달러이다. 국가 별로 보면, 인도에 대한 총 용자 금액이 약 18억 71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이 약 18억 달러, 파키스탄이 약 15억 2200만 달러, 방글라데시가 14억 1000만 달러 순이다. 즉, 중국이 주도하는 AIIB와 일본이 주도하는 ADB의 협력 프로젝트는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원 협력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그림5> 참조).



<그림5> 2016년~2022년도 ADB 주도 AIIB 공동 자금 지원 협력 추세

출처: AIIB의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위의 인터넷 자료 참고함.

2023년 5월, ADB 연차 총회가 개막하였으며, 4년 만에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3국은 금융, 교역, 투자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밝혔다. 또한,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공동번영을 위해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⁶⁵⁾ 또한 2024년 7월,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의 내셔널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급변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환경속에서 CSP(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와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수립 및 역내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표명하였다.⁶⁶⁾

2024년 기준으로, AIIB와 ADB의 협력 프로젝트는 필리핀의 Bataan-Cavite Interlink Bridge(BCIB) 프로젝트이다. AIIB는 최대 11억 4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ADB는 AIIB와 함께 BCIB 프로젝트에 용자를 제공한다.⁶⁷⁾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경제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개발과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은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RCEP, AIIB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경쟁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의 대 중국 정책과 태도는 정당 및 지도자의 의사 결정, 미국의 요구, 경제적 이익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지정학·지경학적인 고려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일본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상호 의존적인 무역 구조 속에서 경제적 협력 가능성과 필요성이 크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세계 경제의 재편이 진행됨에 따라 무역 보호주의와 배타적 소다자주의는 시대 발전 및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부합되지 않으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될 것이다.

4. 결론

중국과 일본은 세계 경제에서 주요한 행위자로서 다양한 경제협력을 이루어 왔

65) 대한민국 정부 국민방송(2023), 『한중일 협력, 세계 경제 빠른 회복의 엔진』,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675787 (2024년9월10일 검색)

66) 뉴시스(2024), 『한중일 외교 "복원된 3국 협력체제, 아세안+3 협력의 새 기회"』(종합),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27_0002828106 (2024년9월10일 검색)

67)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AIIB)(2024), 『AIIB Approves Financing for Bataan-Cavite Interlink Bridge Project in the Philippines』, <https://www.aiib.org/en/news-events/news/2024/AIIB-Approves-Financing-for-Bataan-Cavite-Interlink-Bridge-Project-in-the-Philippines.html> (2024년9월10일 검색)

다. 그러나 양국은 정치와 역사적인 마찰로 인해 오랜 시간 역내 경쟁자로 인식되어 왔으며, 2010년대 이후 중일 경제 규모 역전과 영토 분쟁의 격화로 일본의 대중 견제 정책은 강화되었다. 또한 최근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 연대하여 다자외교적 차원에서도 대중 견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일본은 미국과 동조하여 TPP와 IPEF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CPTPP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알려진 일대일로, AIIB, RCEP를 견제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변화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중일 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일본은 중국에 대해 균형 잡기(balancing)와 편승(bandwagoning)이라는 극단적인 전략 대신 헤징(hedging) 또는 수용(Accommodation) 등의 접근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Kang 2009, Kim & Zhang 2021)⁶⁸. 즉, 일본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에게나 가능한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균형 잡거나, 약소국들이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편승 전략이 아닌 중간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전략적 도전이자 상업적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일본은 중국 주도의 다자협력체에 대해 설립 초기에는 부정적 또는 소극적 반응을 보였으나, 점차 적극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으며, 경쟁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일 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서 항만, 철도, 공업 단지 건설 등 인프라 개발 및 건설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AIIB와 ADB 간 융자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을 공동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자 중일 간 최초의 FTA인 RCEP를 통해 무역 교류를 증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분석 결과로써 미·중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분단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 상황 속에서 역내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는 중일 양국이 국가이익과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일본의 경제외교 정책은 미·중 경쟁에 있어 미국과 연대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전략과 자국 산업 발전 도모라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 간의 모순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일체화가 진전되고, 다자협력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68) Kang, David C. O.(2007), 『China Rising: Peace, Power, and Order in East Asia』, Columbia University Press, pp.253-262. Ji Young Kim, Muhui Zhang,(2021), “Resilience amid Fluctuations: South Korea and Japan’s Security Strategies toward China Revisited”, KOREA OBSERVER, 52(3), 한국학술연구원, pp.407-433.

은 중국과의 협력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일임을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은 동아시아 경제협력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BRI)와 RCEP을 동시에 활용하여 일본과 같이 제3국 시장에서 대중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세안 및 일대일로 연선 국가·지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산업 경제 발전과 공급망 다변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RCEP 역내 GDP의 약 83%, 교역액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의 경제 협력은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동시에, RCEP과 글로벌 경제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⁶⁹⁾ 더 나아가 역내 정치적 갈등과 보호주의 확산을 억제하고, 한중일 FTA 발족에 기여할 것이다.

【관련 웹 사이트】

경기일보(2021), 『RCEP 협력과 CPTPP 갈등, 그리고 IPEF의 긴장』,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12201181398> (2024년8월10일 검색)

경향신문(2017), 『중국 구애 강화하는 일본, ‘일대일로’ 투자 기업 지원키로…대북 압박,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등 목적』,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711281607001> (2024년9월8일 검색)

뉴스비전(2022), 『일본 국제 협력 협력 은행, 미국, 인도 및 호주 정부 산하 금융기관과 협력 강화 계획』, <https://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97> (2024년8월20일 검색)

뉴스시스(2024), 『한중일 외교 "복원된 3국 협력체제, 아세안+3 협력의 새 기회"(종합)』,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27_0002828106 (2024년9월10일 검색)

동아일보(2015), 『中 금융굴기 AIIB의 위력』, <https://www.donga.com/WEEKLY/inter/article/all/11/99106/1> (2024년9월10일 검색)

_____(2022), 『韓, 공급망·디지털 중심 IPEF 참여…13개국 ‘거대 경제협력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23/113576582/1> (2024년8월16일 검색)

대한민국정부 국민방송(2023), 『한중일 협력, 세계 경제 빠른 회복의 엔진』,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675787 (2024년9월10일 검색)

산업통상자원부(2022), 『아태 통상 시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모색』, <https://www.fta.go.kr/rcep/paper/1/> (2024년8월16일 검색)

한겨레(2020), 『일, 중 진출 기업 이전 지원 탈동조화 우려 커지는 중국』,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56618.html> (2024년9월21일 검색)

_____(2023), 『미중 질서’ 무너진 시대 바뀌는 세계경제 흐름』,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

69) 세계일보(2022), 『RCEP 발효와 한중일 경제협력의 의미』,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6514885> (2024년11월03일 검색)

- my_general/1119581.html (2024년8월16일 검색)
- 한국경제(2015), 『중국 AIIB 견제 나선 일본, 필리핀에 2400억엔 지원』, <https://www.hankyung.com/news/ap/newsview.php?aid=2015072886031> (2024년9월10일 검색)
- _____(2021), 『CPTPP 가입 추진하는 중국의 노림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91738441> (2024년9월10일 검색)
- 해외시장뉴스(KOTRA 2024), 『중국 RCEP 발효 2주년, 무역 투자 현황과 성과는?』,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CONTENTS_NO=2&MENU_ID=80&SITE_NO=3&bbsGbn=242&bbsSn=242&pNttSn=217387(2024년11월19일 검색)
- _____(2022), 『RCEP 발효와 중국 무역(1) 주요 포인트와 시사점』,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3029 (2024년9월20일 검색)
- _____(2022), 『RCEP의 향후 중국 대외무역 관련 영향 전망』,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5868 (2024년9월9일 검색)
- アジア経済研究所(IDE-JETRO)(2020), 『転機の一帯一路構想と日中経済協力』, <https://www.ide.go.jp/Japanese/Publish/Reports/AjikenPolicyBrief/133.html> (2024년9월8일 검색)
- 外務省(2018), 『安倍総理の訪中(全体概要)』, https://www.mofa.go.jp/mofaj/a_o/c_m1/cn/page4_004452.html#section11 (2024년9월13일 검색)
- _____, 『2024 外交青書』,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653233.pdf>
- 日本経済新聞(2018), 『アジア開銀総裁、AIIB「脅威ではない」』,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30121420T00C18A5EE8000/> (2024년9월11일 검색)
- _____(2021), 『アジア開銀、新型コロナ対策支援でAIIBと協調融資 バングラデシュ向けなど11件』,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GM178TX0X11C20A2000000/> (2024년9월11일 검색)
- _____(2022), 『ADB総裁「食料危機に財政支援」 AIIBと協調模索』,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87D60Y2A810C2000000/> (2024년9월11일 검색)
- _____(2023), 『中国・王毅外相、APECで「建設的役割」国際貢献の姿勢強調 - (nikkei.com)』,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B26CET0W3A920C2000000/> (2024년9월18일 검색)
- _____(2024), 『日中韓、FTA交渉再開で合意 朝鮮半島の安定に「責任」』,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46TH0U4A520C2000000/> (2024년9월1일 검색)
-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2018), 『在中国日系企業のビジネス展開における課題と留意点』, https://www.jetro.go.jp/ext_images/_Reports/01/9330510ed4875b97/20170141.pdf, pp.30-31.
- _____(2023), 『2022年度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 https://www.jetro.go.jp/ext_images/_Reports/01/0a95704963871dd3/20220059.pdf (2024년7월30일 검색)
- _____(2023), 『発効から1年、中国ではRCEP協定の利用が拡大』,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23/f08ccdac54846c97.html> (2024년8월30일 검색)
- 毎日新聞(2024), 『だった中国、韓国は共通利益を強調 日中韓首脳会談』, <https://mainichi.jp/articles/20240527/k00/00m/030/298000c> (2024년9월24일 검색)
- _____(2024), 『日韓・中、隔った思惑 首脳会談』, <https://mainichi.jp/articles/20240528/ddm/003/010/045000c> (2024년9월24일 검색)
- _____(2024), 『日中韓首脳会談が再開 対話の流れ加速させたい』, <https://mainichi.jp/articles/20240528/ddm/005/070/018000c> (2024년8월22일 검색)
- JJJI.COM(2023), 『中国主導のAIIB、日本に秋波 筆頭副総裁単独インタビュー』, <https://www.jiji.com/jc/v8?id=202305kaisetsuiin060> (2024년9월10일 검색)
- ADB(Asian Development Bank)(2019), 『ADB and AIIB Presidents Discuss Strategic and Operational Issues』, <https://www.adb.org/news/adb-and-aiib-presidents-discuss-strategic-and-operational-issues> (2024년9월18일 검색)
-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2024), 『AIIB Approves Financing for Bataan-Ca

- vite Interlink Bridge Project in the Philippines』, <https://www.aiib.org/en/news-events/news/2024/AIIB-Approves-Financing-for-Bataan-Cavite-Interlink-Bridge-Project-in-the-Philippines.html> (2024년9월10일 검색)
- _____, https://www.aiib.org/en/about-aiib/who-we-are/project-affected-peoples-mechanism/_common/_download/Approved-Co-Financed-Projects-Mid-2023-with-Applicable-ESP-and-IAM_15082023_Uploaded-on-Website.pdf (2024년11월6일 검색)
- 新浪网(2024), 『共筑发展繁荣之路—“国家重大战略中的市场监管力量”共建“一带一路”』, <https://finance.sina.com.cn/jjxw/2024-07-25/doc-incfiqv8550602.shtml> (2024년9월10일 검색)
- 新华网(2015), 『日本为什么放弃成为亚投行创始成员国』, http://www.xinhuanet.com/world/2015-04/01/c_127644110.htm (2024년8월16일 검색)
- 澎湃新闻, 『中日关系或现转机: 日本想加入亚投行, 访华团带来安倍亲笔信』, https://m.thepaper.cn/kuaibao_detail.jsp?contid=1686852&from=kuaibao (2024년9월18일 검색)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16), 『亚洲开发银行首次和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合作融资』, <http://gpj.mofcom.gov.cn/article/zuixindt/201606/20160601338404.shtml> (2024년9월11일 검색)
- 中国一带一路网(2017), 『亚行与亚投行融资合作: 10亿美元助印度电力升级』, <https://www.yidaiyilu.gov.cn/p/29424.html> (2024년9월11일 검색)
- _____(2022), 『习近平会见日本首相岸田文雄』, <https://www.yidaiyilu.gov.cn/p/291753.html> (2024년9월24일 검색)
- _____, <https://www.yidaiyilu.gov.cn/list/w/xmzb>
- _____, <https://www.yidaiyilu.gov.cn/>
-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중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2014), 『中国倡导支持亚洲基础设施建设 亚投行“呼之欲出”』, https://www.gov.cn/xinwen/2014-03/07/content_2632146.htm (2024년9월1일 검색)
- 人民政协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웹사이트)(2016), 『亚投行与亚开行签合作备忘录 将开展合作融资』, <http://ps://www.rmzxb.com.cn/c/2016-05-03/792598.shtml> (2024년9월18일 검색)

◀ 참고문헌(Reference) ▶

- 김준영·이현태·오윤미(2018),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은 어떠한 협력을 추구해야하는가?-AIIB의 국제협력현황과 전망」,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1호,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pp.101-124.
- 김홍규(2016),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 한계점과 전망」, 『중소연구』 제40권 제3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pp.7-48.
- 고은귀(2022),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게임이론적 분석: 중국과 북핵문제의 교차점」, 『대한정치학회보』 제30권 제2호, 대한정치학회, pp.79-102.
- 이기태(2016), 「협력과 충돌의 대외전략: 일본의 아시아 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44호, 현대일본학회, pp.135-160.
- 이요한(2018),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쟁과 공존 - ASEAN 개발도상국 인프라를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pp.87-116.
- 손열(2014), 「일본의 TPP 교섭참가결정 분석: 지역경제질서 건축전략의 맥락에서」, 『일본연구논총』 제39호, 현대일본학회, pp.235-254.
- 畑佐伸英; ハタサノビヒデ(2022), 「遂に始動した RCEP-「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協定」の意義と課題」, 『大阪経済法科大学経済学論集』 46(1), 大阪経済法科大学経法学会, pp.1-36.

- 徐国玲(2020), “基于“一带一路”建设的中日第三方市场合作的机遇, 挑战及策略”, 『对外经贸实务』(1), 武汉纺织大学; 中国国际贸易学会, pp.20-23. DOI:10.3969/j.issn.1003-5559.2020.01.006
- 王厚双; 张霄翔(2019), ““一带一路”框架下中日加强在东盟第三方市场合作的对策思考”, 33(2), 『日本问题研究』33(2), 河北大学, pp.23-33. DOI:10.14156/j.cnki.rbwtj.2019.02.003.
- 周洪林(2021), ““一带一路”框架下中日第三方市场合作研究”, 青岛大学 석사논문, pp.1-57.
- Ferdinand, P.(2016), “Westward Ho—The China dream and ‘One Belt, One Road’”, *International Affairs*, 92(4), pp.941-957.
- Jiang, Y.(2019), “Competitive partners in development financing: China and Japan expanding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The Pacific Review* 32(5), Taylor & Francis, pp.778-808.
- Kang, D. C. O.(2007), *China rising: Peace, power, and order in East Asia*, Columbia University Press, pp.253-262.
- Katada, S. N.(2016), “At the crossroads: The TPP, AIIB, and Japan’s foreign economic strategy”, *AsiaPacific Issues* NO.125, *Analysis from the East-West Center*, pp.1-8.
- KIM, Jiyoung; ZHANG, Muhui.(2021), “Resilience amid fluctuations: South Korea and Japan's security strategies toward China revisited”, *Korea Observer* 52(3), 한국학술연구원, pp.407-433.
- Shogo Suzuki.(2022), “Economic statecraft, interdependence, and Sino-Japanese ‘rivalry’”, *The Pacific Review* 35(5), Taylor & Francis, pp.971-994. DOI: <https://doi.org/10.1080/09512748.2021.1941209>
- Tien, N. H., Do, P. C., Phong, V. T., Van Thuong, P., & Van Dung, H.(2019), “AIIB as a Challenger for IMF and WB”, *Issue 10 (October 2019)* 2(10), *American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AIJB)*, pp.62-68.

<ABSTRACT>

**Regional Politic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Focusing on the Changes on Japan's Policy toward China in Regional
Economic Institutions**

Jin, Zheng (Hanyang Univ.)

Kim, Ji Young (Hanyang Univ.)

In response to the evolving U.S.-China conflict, Japan strengthened its diplomatic and economic alignment with the United States, adopting a more assertive stance on multilateral platforms, such a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This alignment is viewed as a strategy to counter China's influence, particularly through initiatives such a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and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However, although Japan initially took a cautious and oppositional approach toward China-led multilateral organizations, it gradually showed a more cooperative attitude, prioritizing collaboration over competition. Japan's association with China in the BRI, AIIB, and RCEP, reflects its strategic shift recognizing the benefits of economic cooperation. Such a shift suggests Japan's flexible approach to balance its economic interests with broader geopolitical considerations.

As China and Japan deepened their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organizations, their economic interdependence increased. If political and historical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alleviated, there is potential for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reciprocity," where both countries can transcend the U.S.-China geopolitical divide.

Keywords : economic groupings, regional institutions, One-Belt One-Road /AIIB/RCEP, Sino-Japanese Cooperation

■ 투 고 : 2024. 09. 30.

■ 심 사 : 2024. 10. 15.

■ 심사완료 : 2024. 10. 30.